



"quarterly 청렴" <2017년 제1호 1/4분기>

2017. 제1호.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

청렴韓 길로(路)

간추린 청렴소식

1 청렴도 향상 실무단 1차 회의 개최(17.03.24)

▶ 실무단 1차 회의를 통해 '17년 소속기관 시책평가 기준을 전파하고 반부패 청렴과제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.



2 제한차량 관련 청렴안내문 발송(17.2.28)

▶ 매월 말 제한차량 운행 허가자를 대상으로 청렴포부 및 반부패 행위 신고방법 내용이 담긴 청렴안내문을 발송(SMS)할 예정입니다.

| 번호 | 성명 | 운행차량 | 운행종류 | 운행상태 |
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01 | 이정호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2 | 김민준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3 | 박지현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4 | 정수민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5 | 최현우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6 | 윤서민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7 | 홍지민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8 | 김민준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09 | 정수민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| 10 | 최현우 | 승용차 | 일반 | 정상 |

3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(17.3)

▶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, 도로파손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"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및 홍보"를 하였습니다.



해외 청렴 사례 소개

싱가포르를 위한 부패척결, 싱가포르

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, 싱가포르

-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이 무역거점으로 개발한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, 2차대전 중에는 일본 군정의 지배하에, 1963년에는 말레이 연방에 가입하였다가 1965년 원치 않은 독립에 직면
- 싱가포르 정부 구성 시 부패방지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사건에 대해 강한 처벌 시행
-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지수(CPI)에 따르면, 싱가포르는 세계 176개 국가 중에서 5위, 아시아 내 가장 청렴한 국가

세계 최고 청렴국가를 위한 노력

- 부정에 대한 최고 벌금액을 기존 액수보다 10배 높이고 법원에게 부정부패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
- 부패해결을 위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, 이것이 결국 사회적 자본(social capital)이 된다는 의식 공유
- 청렴국가, 경제 강국이 되다.
- 아시아 개발 은행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국내총생산(GDP)의 17배.
- 부패로 인한 손실을 줄여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

☐ 행동강령 Q & A

Q&A 직무관련자

Q "직무관련자"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인데, 여기서 '소관업무'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A '소관업무'란 법령, 훈령,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됨

Q&A 파견공무원과 행동강령

Q 파견 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지?

A 파견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 받음
 ※ 다만, 파견기관의 행동강령이 없는 경우 원 소속기관인 국토교통부 행동강령을 적용 받음

☐ 김영란법 바로 알기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

① 청탁금지법 추진배경

- 부정부패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 표출
-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
-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

②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

-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.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-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, 언론사

③ 청탁금지법 적용관련 Q&A

-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나 회의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→ NO(직무관련시 신고)
-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→ NO(허용 불가)

☐ 청렴만화

본격청렴만화 아니아니 아니되오!



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, 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.

☐ 청렴인물 탐방

◆ 포천현감 이지함 (1517 ~ 1578)



이지함은 벼룩에 짚신을 신고 베로 만든 갓을 쓰고 부임했습니다. 그런데 아전이 음식상을 차려 올리자 이지함은 가만히 바라보더니 "먹을 게 없군" 했습니다. 잠시 후 아전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더 좋은 음식들을 차려 내왔습니다. 이지함은 또 가만히 바라보더니 "역시 먹을 게 없군" 했습니다. 아전은 두려워 벌벌 떨어졌습니다.

이지함이 말했습니다. "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양반이나 관리들이 음식에 절제가 없어서네. 나는 음식 먹는 사람들이 밥상을 미화하는 것을 싫어하네." 그리고는 오곡을 섞어서 지은 밥 한 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지어 갓 넣은 갓집에 담아내어 오게 했습니다.

이러한 이지함 성품 때문에 포천현감을 그만두고 떠나게 되었을 때는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떠나지 말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.